

여의도 BOOK REVIEW

밥 우드워드의 『전쟁』



김정수 옮김/ 캐피털북스/ 2025.11.16 출간

풀리처상을 두 번 수상한 미국의 전설적인 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작인 『전쟁』은 21세기 현대사를 뒤흔들고 있는 세 개 전쟁—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그리고 미국 대통령직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충격적 진실과 비화를 담고 있다.

『전쟁』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생생하고 총체적으로 담아낸 책이다. 우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이 러시아의 푸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나누는 숨 막히는 대화의 현장을 목격한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가 그림자 대통령 행세를 하며 정치적 재기를 꿈꾸는 장면들도 생생히 볼 수 있다. 결국 그는 재기에 성공해서 워싱턴으로 금의환향하고 자신의 공약대로 MAGA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드워드는 독보적인 백악관 내부 취재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는 모습을 생생히 전한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 바이든과 그의 국가안보팀이 사력을 다했던 모습, CIA 국장인 윌리엄 번스가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마지막으로 푸틴을 설득·압박하는 모습, 그리고 푸틴의 침공에 대비해 NATO를 중심으로 한 유럽 및 동맹국들 연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까지. 바이든과 유럽 지도자들의 거둬들인 설득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지상전이 발발한다. 그리고 우드워드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과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전을 막기 위한 전시 막후 외교의 극도로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과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전해준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잔인한 이스라엘 공격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과 테러 조직 하마스 사이의 유혈 분쟁을 막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험난한 여정도 함께 다룬다. 복수에 불타는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군부를 설득하고 중동 분쟁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든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방문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들은 바이든의 충언을 거부했다. 그들의 분노와 복수는 국가를 위하기보다는 무너져내린 지도력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고, 여기에 절대적 승리가 필요했다. 병원 에 하마스가 숨어 있다는 명분으로 병원을 폭격했다. 라파에 하마스 잔당이 피신해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 대피도 없이 라파를 공격했다.

네타냐후의 잔인한 보복은 도를 넘어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는 7만 명을 넘어선다는 보도다. 병원 파괴와 의약품의 반입 차단, 그리고 인도적 구호 물품의 차단 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무려 15만 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바이든은 네타냐후의 잔인한 공격을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군사적 지원 중단을 검토하지만, 헤즈볼라나 이란의 준동 가능성을 들어 그 카드도 쓰지 못했다. 저자는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잔인한 공격을 막지 못해 분노하고 좌절하는 바이든과 블링컨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의 격렬한 권력 투쟁이 가속화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27일 전국에 방영된 대선 TV 토론에서 노령으로 인한 쇠퇴의 모습을 드러낸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충격을 받는다. TV 토론이 채 끝나기 전에 민주당 진영에서는 후보 사퇴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로 시작된 이 싸움은 결국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예상치 못하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상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해리스에게는 불과 107일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우드워드와 미츠커의 취재는 다시 한 번 권위와 통찰력을 겸비한 저널리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 책의 출간 시기가 의미심장하다. 이 책은 미국 대선을 불과 20여 일을 앞둔 10월 15일에 출간되었다. 저자는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두 번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트럼프를 역사상 가장 충동적이고 무모한 대통령이라고 결론짓는다. 그의 권위와 경력을 생각할 때, 이 책이 보여주는 트럼프에 대한 묘사를 의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지금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보여주는 극단의 진영 정치와 무모한 행동들은 저자의 예견이 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금융독서포럼 김정수 대표)



밥 우드워드는 풀리처상을 두 번 수상했고, 22권의 책이 모두 베스트셀러였고, 그중 15권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언론계의 거장이다. 『전쟁』 역시 <뉴욕타임스>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